

번역문

**호르스트 쾰러 독일연방대통령**

**한국 경제 4 단체 주최**

**오찬사**

**서울, 2010년 2월 9일**

독일인들은 한국에서 열렸던 두 가지 큰 스포츠 행사, 즉 88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 세계의 이목은 한국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격동하는 시기에 큰 책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지구적 공존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규정들을 찾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 금융시장 질서의 재편성이 시급합니다. 금융시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전 세계가 또다시 낭떠러지 끝으로 몰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빈곤퇴치, 기후정책, 그리고 세계무역에 있어서 전 지구적인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안녕은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만의 고유한 역사,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있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19세기 한국에는 서방세계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은자의 나라' 조선은 개방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식민지가 되었고, 국토 분단을 겪었으며, 참혹한 내전으로 인해 돌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독문학을 전공한 작가 이청준은 단편소설 '흥터'에서 이렇듯 굴곡 많은 한국의 역사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소설에서 할아버지는 노동과 전쟁으로 인해 생긴 몸의 수많은 흉터에 대해 자부심과 비애를 동시에 느끼면서 손자에게 설명해줍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며 생존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을 만든 흥터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약간의 비애를 느낍니다. 손자는 이런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세계가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듯이 말입니다.

일례로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국민의 권리를 쟁취한 한 민족의 자유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적 전통과 인권이 어떻게 서로 결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인들 역시 그들의 통치자와 통치방식, 또 그들의 정부가 대변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국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경제성장도 세계가 한국에게서 배울 부분입니다. 19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오늘날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개발정책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혁신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교육에 대한 고도의 집중이야말로 한국이 농업국가에서 하이테크 국가로 부상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가 부흥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도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 경제개발을 계획했던 전문가들은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이렇게 단순한 인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한국민의 근면과 열성도 한 몫 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일찌기 한국민의 이런 특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60년대부터 독일로 왔던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은 대단히 열심히 일함으로써 독일의 재건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들의 노동은 자본을 한국에 유입시키고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이주노동의 양면을 모두 아는 국가가 자국의 경험을 국제적 논의에 반영시킨다면 이는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이주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들에 합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빈곤퇴치에 관한 지구적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많은 국제적 연대를 받았고, 지금은 강력해진 힘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과 더 많이 연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신호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첫째는 폐허에 놓여 있던 가난한 국가가 불과 2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둘째로 한국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참여함으로써 개발협력을 오로지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연장선 상에서만 보려는 입장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명합니다.

점점 더 서로 밀접하게 얽혀가는 하나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긴밀히 협력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치열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과 달리 전 세계 국가들은 힘을 합해야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안고 있는 두 번째 큰 도전인 기후변화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역시 평균기온이 상승하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기후변화가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느낀 우리의 실망감은 고삐를 늦추지 말고 기후보호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박차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낮지만 전체 배출량은 높은 주요 신흥공업국가들에게 해당됩니다. 또 지구적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부유한 선진국가,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에 해당됩니다. 내 생각에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이 그룹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현재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다른 개도국들과 동일한 그룹에 속해있지만 말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장려하는 확실한 제반 여건 하에서 독일의 산업이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처럼 분명한 감축목표는 한국에도 역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양국이 기후보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

한 확신은 내가 작년에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인 하노버박람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박람회 참가업체들은 환경산업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장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도 하노버박람회의 공식 파트너국가였던 한국에서도 이 분야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많은 기업가들이 환경분야에 투자함으로써 독일 경제의 미래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기업은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과 독일 기업들이 그들의 기술과 먼 앞날을 내다보는 전략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오후에 이러한 한독 협력의 사례가 되는 기업을 방문하여 조류발전소 시범프로젝트를 참관하게 되어 기대가 큼니다.

자원효율성의 제고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절실히 요구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때 국가 차원의 규정은, 이것이 국내법이든, 국제적 규정이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는 한국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으로 생태적 성장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기업가적 행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공적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선진사회의 일련의 소비습관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입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분단이라는 상황이 주는 고통과 우려와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자들은 독일통일을 정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통일과 관련된 높은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가 다른 결정적인 문제들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됩니다. 독일 통일은 1,700 만명의 인간에게 수십 년 간의 독재를 뒤로 하고 드디어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양 진영으로 갈려져 서로 적대시하던 유럽 분단이 종식됨으로써 냉전이 실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이 오늘날 유럽의 심장부

에서 평화와 자유 누리며 산다는 사실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통일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일의 경험에 따르면 상황은 때로 급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독일 통일 20주년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을 갈라놓았던 분단의 인간적 고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한국 역시 분단을 근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